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영화 '변호인' 나흘만에 120만명 돌파

주인공 송강호 '2000만 배우' 등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짧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변호인(사진)'이 120만 관객을 돌파했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은 개봉 나흘 만인 21일까지 120만 8370명을 끌어모았다. 이는 1281만 명을 모은 올해 최고 흥행작 '7번방의 선물'(119만 명) 보다 빠른 흥행속도다. '변호인'은 지난 18일 개봉 이후 누적 매출액 점유율에서도 42.5%를 차지하며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13.9%)와 '어바웃 타임'(13.3%)을 압도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송강호는 '변호인'의 이 같은 선전에 힘입어 한 해 처음으로 2000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로 등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송강호는 '실국열차'(934만 명)와 '관상'(913만 명)을 통해 1847만 명을 모은 바 있

어 22일 '변호인'이 33만 명만 동원하면 이른

바 '2000만 배우'가 된다. 전날 '변호인'은 54만 명을 끌어모았다. /연합뉴스



1인당 평균 영화관람횟수 세계 최고

한국, 미국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차지

우리 국민의 1인당 평균 영화관람횟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CGV가 영국의 미디어 리서치 업체 스크린다이제스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인당 평균 영화관람횟수는 한국이 4.12편으로, 미국(3.88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호주는 3.75편으로 3위를, 프랑스는 3.44

편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다양한 영화가 쏟아지면서 한국영화 관객이 2년 연속 1억 명을 돌파하고, 영화관의 증가 등으로 총관객 수도 처음으로 2억 명을 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호조에 힘입어 전체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다. 복합상영관 CGV는 올해 국내와 국외를 합쳐 모두 1억 관객을 돌파하면서 세계 5위 권에 진입했다. CGV는 미국의 리갈시네마, 중국의 AMC, 미국의 시네마코, 멕시코 시네폴리스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누적관객 1억 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다문화 고부 열전', '미술험담', '정글북', etc.,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like '고교특강 올림프투스', '영어 독해의 기본(2)', '수능 길잡이',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like '하하하의 상상놀이(1)~(3)', '초등 3년 EBS 거울방학생활', '초등 5년 EBS 거울방학생활', etc.



김준호 KBS 연예대상 대상 수상

김준호·김지민·차태현·박미선 최우수상 영예

개그맨 김준호(사진)가 21일 KBS 연예대상 대상 상을 받았다. 이날 오후 9시 15분부터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준호는 이영자, 유재석, 신동엽, 이경규, 강호동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김준호는 '개그콘서트'와 '해피선데이-1박2일'에 출연하고 있다. 김준호는 "내노라하는 존경하는 선배들과 함께 후보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피하고 영광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준호는 2년 연속 코미디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는 '개그콘서트'의 김지민(코미디), '해피투데이', '맘마미야'의 박미선·해피선데이-1박2일의 차태현(소오락)이다. 우수상에는 '개그콘서트'의 김민경·유민상(코미디), 박은영·아나운서·김투정·정찬우·김

태권(소오락)에게 돌아갔다.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은 지난해에 이어 '개그콘서트'가 받았고, 최고 엔터테인먼트상은 문희준·김종국(정보소오락), 추성훈·최강창민(버라이어티)에게 돌아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슈퍼맨의 아이들이 모바일 TV 인기상을 받았고 '개그콘서트'의 황해가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차지했다. ▲신인상 = 존박·보라(소오락), 이문재·안소미(코미디) ▲프로듀서 특별상 = 이휘재 ▲베스트 팀워크상 = 우리동네 예체능 ▲라디오 DJ상 = 장윤주 ▲공로상 = 장병민 카메라 감독 ▲방송작가상 = 이상덕(코미디), 이현숙(소오락) ▲특별상 = 강승원 음악감독 ▲특집 프로그램상 = 가요무대 특별 공연 ▲실험 정신상 = 인간의 조건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3일(음 11월 21일 癸亥)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and lucky numbers.

TV 하이라이트

엄마 같은 언니가 짐이 된 이유



달라졌어요(EBS 밤 10시45분)=하루 종일 먹고, TV보고, 자는 일상의 반복.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를 보내는 35세 정우씨. 가족을 납치된 대하며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는 미용실. 3년째 이런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왜 딸은 가족을 적대시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된 걸까? 과거 바쁜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키우며 살림을 살았던 정우씨. 그러나 3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헤어진 후 180도 변해 버렸다 한다. 갑자기 돌변한 딸로 인해 모였다 하면 싸움이 되는 가족. 급기야 정우씨는 가족에게 폭력까지 행사한다. 발길을 끊고 살아온 남매들과 반대로 딸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엄마. 딸을 향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엄마의 사랑은 가족 간 고통의 신권으로 이어진다.

6개월만에 만난 드림오케스트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35분)=지난 2012년 7월, 서울 마천과 천안 성정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드림오케스트라'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처럼 희망TV SBS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한 '드림 오케스트라'. 아이들은 처음으로 악기를 손에 쥐면서 꿈이 생겼고, 지난 5월에는 천안 드림 오케스트라가 첫 연주회를 가지면서 더욱 희망 날갯짓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자선 연주회를 통해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할 줄 알게 된 아이들.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천안 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동안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은 물론이고, 신입단원들까지 새롭게 모집해 더욱 탄탄해졌다.

사랑이 필요한 고민자랑 특집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2 밤 11시10분)=연말을 맞아 '안녕하세요'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랑특집' 제2탄, 사랑이 필요한 고민. 게스트로 출연한 이윤석, 윤형빈과 걸그룹 '티아라' 램버 은정, 보람과 함께 하는 '마'처럼 희망TV SBS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한 '드림 오케스트라'. 아이들은 처음으로 악기를 손에 쥐면서 꿈이 생겼고, 지난 5월에는 천안 드림 오케스트라가 첫 연주회를 가지면서 더욱 희망 날갯짓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자선 연주회를 통해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할 줄 알게 된 아이들.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천안 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동안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은 물론이고, 신입단원들까지 새롭게 모집해 더욱 탄탄해졌다.